

예루살렘 입성

QT는 Quiet Time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01 찬양과 기도



〈오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통일 429)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

인도와 보호

Lead, kindly Light

J. H. Newman, 1833

찬양과 사명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 30:7-14)

LUX BENIGNA: 90.4, 10.4, 10.10.

J. B. Dykes, 1865

조금 느리게



1.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 빛 되신 주
2.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 여
3.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 래 에 도

저 본 향 집 을 향 해 가는 길 비 추 소 서
맘 대 로 고 집 하 면 이 죄 인 사 하 소 서
내 앞 에 험 산 준 령 만 날 때 도 우 소 서

내 가 는 길 다 알 지 못 하 나
내 지 은 죄 다 기 억 마 시 고
밤 지 나 고 저 밤 은 아 침 에

한 걸 음 씩 늘 인도 하 소 서
주 뜻 대 로 늘 주장 하 소 서
기쁨 으 로 내 주 를 만 나 리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1st) Ab→G Db→C Eb7→D7 Bb7→A7

<http://blog.daum.net/dw7055>

02 본문 읽기



마가복음(Mark) 11:1 - 11:19

본문 말씀을 2~3회 읽은 뒤 문맥을 고려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 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 5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 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 8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 13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 14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 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 19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03 묵상하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04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05 기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나의 기도

예루살렘 입성

본문 : 마가복음(Mark)11:1 - 11:19 찬송가 459장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후 성전으로 가셔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척결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10절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눅 9:9,10).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일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에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순례자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외치며 겔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퍼드렸습니다. 겔옷을 퍼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행위였고, 호산나는 왕의 자비를 구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만민의 왕으로서, 또 로마의 속박을 벗어나는 잠시의 평화가 아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영원한 살롬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15-19절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당시 성전의 바깥뜰(이방인의 뜰)은 제물을 파는 상인들과 돈을 환전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십만의 순례자들이 영업 상대자였을 것입니다. 그들과 깊이 유착된 성전 당국자들 역시 이들의 독점을 묵인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사 56:7)을 "강도의 소굴"(렘 7:11)로 만든 성전 권력에 도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참여할 예배 공간을 예배자의 주머니를 약탈하는 장소로 바꾸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거짓 제사 뒤에 숨겨주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파괴적인 행위는 기능을 상실한 성전 종교에 대한 심판 행위였습니다(13:2).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척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역시 예배 공동체가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2-14절 앞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앞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외적 종교 행위는 많지만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없는(미 7:1)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호 9:10). 기능을 상실한 성전 제사 제도,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 정의와 공의를 결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한탄과 분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기대하시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기도

공동체-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께 기쁘게 드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열방-프랑스에서는 매년 100명 이상의 여성이 배우자나 동거남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정부가 가정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여 더 이상 희생되는 여성이 없도록

마가복음 11:1-19

주제 | 하나님 나라는 순종과 겸손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나라다.

핵심 질문 |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 도입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 열매 맺는 백성으로 새 창조 하려고 오셨다.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 없는 열매를 맺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으신 나무다. 주님 이 기대하시는 실하고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2. 본문

주께서 가져오신 나라

나귀 타신 주님의 모습은 그 나라가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나라임을 보여준다. 세상 나라가 권력과 돈의 힘으로 영광을 구하는 나라라면, 주님의 나라는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여 세워가는 나라다. 칼이 권세가 아닌 십자가로 오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섬기자.

열매 없는 이스라엘

시장하신 예수께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를 찾았지만 얻지 못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한 저주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이다. 앞만 무성 하고 열매가 없는 성전, 참다운 예배가 없는 삶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썩은 열매를 맺은 이들

성전은 장사치들이 점령하고 과부 같은 약자들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방인들을 위한 자비의 자리는 사라졌고 주님의 집을 탐욕으로 유린하였다. 하나님이 우상으로 전락한 그곳에 주님은 임재는 고사하고 잠시도 머무실 수 없다.

3. 결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성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나라다.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그 나라를 치환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나귀 타신 주님을 기억하자. 이권에 눈멀고 무기력해진 바리새인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역동적인 믿음으로 살아 가자.